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0호 【루게 제2488호】 주제104(2015)년 4월 20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장을 현지도하시였다.

최룡해 동지, 리재일 동지, 전용남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의 지휘성원들이 맞이하였다.

백암군의 서두수상류에 3개의 계단식발전소로 건설되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는 우리나라 수력발전소건설력사상 가장 불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어렵고 방대한 공사대상이다.

주체혁명의 성지 백두대지를 더욱 빛내는데 이바지하게 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 강성국가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 굳게 믿으시고 청년동맹에 통채로 맡겨주신 영예로운 전과업이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기발을 펴 펴 휘날리며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장으로 용약 달려온 우리의 미더운 청년전위들은 결집하는 엄숙한 시련과 난관들을 박차고 발전소건설에 청춘의 힘과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돌격대지휘성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으로 오느라니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간절했다고, 발전소건설을 얼마나 중시하시였으면 외국방문을 마치고 길로 불편하신 몸이었지만 이런 산세험한 곳까지 찾아오시였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저러온다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 걸을수록 정말로



있는 량강도의 인민생활과 경제문제를 푸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까지 1호, 2호발전소건설을 무조건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은 백두산아래 첫동네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것만큼 청년동맹을 비롯한 해당부문에 발전소건설을 경제실무적으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내자면 세멘트와 강재, 연유를 비롯한 건설용자재와 발전설비를 제때에 생산보장해주며 수송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내각과 성, 중앙기관들에서 필요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과 함께 전당

우리 장군님 같은신분은 세상에 없다는 생각이 갈마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힘찬게 목을 가로지르며 솟구치고있는 1호발전소 언제를 바라보시면서 그동안 어려운 속에서 많은 일을 하였다고, 백두대지의 흑한속에서 정말 고생이 많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장군님께서 남기신 유산이고 사랑의 젖줄기이며 조국의 만년제부인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하루 빨리 완공하자는것을 청년돌격대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경도 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사정형과 돌격대원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이 불리한 조건과 환경속에서 기본건설대상인 1호발전소 콘크리트연제공사를 다그치면서도 2호발전소 사석연제건설을 완전히 끝내고 2호발전소 물길굴건설도 마감단계에서 진척시키고있는것을 비롯하여 발전소건설을 립체적으로 전개해온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이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침수지역 주민들을 위해 수백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였을뿐 아니라 온 나라를 수리화, 원리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양묘장

을 꾸려놓고 나무심기를 대대적으로 하고있다고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에서 정양소와 후방기지 등을 자체의 힘으로 번듯하게 꾸려놓고 그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돌격대원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고있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위엄을 실천으로 받들려는 불타는 총정심과 나라의 전기문제를 푸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는 열정을 지닌 청년돌격대원들이기에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을 처음 맡아해보지만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고 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인 삼시연군과 혁명전적지들이

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발전소건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발전소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에서 모두 풀어주었으니 청년돌격대원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정치사업과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며 공사를 립체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한 조직지휘를 짜고들어 단계별, 대상별목표를 일정에획대로 점령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서도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강력한 력량을 건설장에 파견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가 리 라 백 두 산 으 로

작사 리지성
작곡 우정희

열정적으로 기백있게 (♩=138)

1. 봄 날 에도 가 - 리 라 겨울에도 - 가 리 라
백 - 두 산 - 백 두 산 내 마음의 고향에
폭 풍 에도 굶 힘 없 는 의 지 를 주 고 - (후렴)
신 - 념 을 버 려 주 는 혁 명 - 의 전 구 가 리 -
라 - 가 리 라 - 백 두
산 으 로 가 리 라 - 우 리 -
를 - 부 르 - 는 - 백 두
산 으 로 가 리 라 -

- 2. 꿈결에도 가리라 그 언제나 가리라
백두산 백두산 내 마음의 고향에
이 땅위에 기적들과 행운을 불러
영웅조선 승리의 길 향도하는 곳
(후렴)
- 3. 한생토록 가리라 대를 이어 가리라
백두산 백두산 내 마음의 고향에
당을 따라 끝까지 갈 영광의 길에
필승의 빛을 주는 태양의 성산
(후렴)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무산광산연합기업소 3호대형원추형파쇄장과 페석광사, 장거리벨트콘베아 <나>선 조업식 진행

우리 나라 골지의 철광석생산 기지인 무산광산연합기업소 3호대형원추형파쇄장과 페석광사, 장거리벨트콘베아 <나>선공사가 훌륭히 완공되었다. 결과 3대의 대형원추형파쇄기를 설치할데 대하여 추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이 빛나게 관철되었으며 철광생산은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공사에 참가한 무산광산연합기업소와 청진금속건설연합기업소아래 무산광업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감사를 보내주시었다. 조업식이 19일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임철웅내각부총리와 전순환합경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판계부부 일군들,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무산광업건설사업소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업식에서는 김용광금속공업사의 조업사에 이어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지배인 명순철, 무산광업건설사업소 기사장 연철민, 무산광산연합기업소 공장구축장이 결의로문을 하였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할 또 하나의 위력한 장조물을 일떠세운 무산광산연합기업소와 무산광업건설사업소안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감사를 받아안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무산광산연합기업소를 여러차례 찾으시고 기업소를 세계적인 철광석 생산기지로 꾸밀데 대한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3호대형원추형파쇄장건설을 비롯한 생산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환히 밝혀 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었다고

말하였다. 아버지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에 무한히 고무된 무산광산연합기업소와 무산광업건설사업소의 로동계급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파강히 이겨내면서 조방운반계통인 장거리벨트콘베아 <나>선공사를 끝낸데 이어 조방처리용 3호대형원추형파쇄장건설과 페석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상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는 자랑스런 성과를 거두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이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철광광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나라의 귀중한 실비인 대형원추형파쇄기들을 비롯한 설비들에 대한 기술관리를 개선하고 전력, 자재보장대책을 짜고들며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

리용하여 생산을 늘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탐사를 적극 앞세우고 최신과학기술에 의한 채굴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로진채굴설비들을 정비보강하여 채굴능력을 더욱 높여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어 모든 일터를 더 잘 꾸리고 기업소 구내를 수리화, 원리화, 공인화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설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에 새기고 생산과 건설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업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업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3호대형원추형파쇄장과 페석광사 등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170여만마리의 새끼연어를 놓아주었다

합경남도수산관리국아래 방류어업사업소들에서 최근 합경남도수산관리국아래 방류어업사업소들에서 인공수정시켜 총합계 170여만마리의 새끼연어를 여러차례 걸쳐 바다와 잇닿은 강물에 놓아주었다. 자료에 의하면 몇백톤에 놓아준 새끼연어들이 바다를 회유하며 평균 3kg정도의 어지물고기로 되어 강으로 다시 올라오고있는데 해마다 그 마릿수가 늘어나고 어획고도 높아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물고기들 오래동안 계속 잡을수 있게 수산자원보호사업도 계획적으로 하고 물고기잡이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실 바다는 큰 자연양어장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당의 현명한 명도의 손길아래 우리 나라에는 연어를 비롯한 강오물성물고기를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놓아주고 다 지란 맛초고 영양가 높은 물고기를 잡는 방류어업사업소들이 동해와 립접한 강하천들의 곳곳에 꾸러졌다. 방류어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할 일념으로 합경남도수산관리국아래 방류어업사업소들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강추위와 싸우며 알낱을 위해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오는 어지연어들을 한 마리, 두마리 손상이 가지 않게 잡아, 이렇게 확보한 100여만마리의 종자연어로 알낱이와 알수정 등 모든 공정에 세기되는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많은 새끼연어를 받아낸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겨우내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 사물들을 95%이상 보장하였다. 보람찬 투쟁의 나날 배합먹이 생산의 국산화를 실현한것을 비롯하여 10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이 도입되고 배양장의 온도보장과 산소공급 등에 필요한 물질기술적토대가 한층 강화되었다. 얼마전 방류어업사업소들에서는 특색있게 만들어진 물고기걸을 따라 새끼연어들이 강으로 배를 지어 흘러가는 호호한 광경이 연이어 펼쳐졌다. 북경남천방류어업사업소가 맨 처음 50만마리의 새끼연어를 놓아준데 이어 신포동물천, 성천강, 단천남천방류어업사업소들에서 각각 수십만마리의 새끼연어를 동해와 잇닿은 강물에 놓아주었다. 합경남도수산관리국 일군인 송철수동무의 말에 의하면 그 회귀율이 단 몇몇만 되어도 리상적이라고 한다. 이번엔 놓아준 170여만마리의 새끼연어인 경우 자연양어의 방법으로 많은 양의 고급어족을 거져나 다름없이 얻는것으로 된다. 투자가 바다에서의 고기잡이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 강하천이 맑고 세면이 바다로 되어있는 우리 나라에서 물고기생산은 더욱 늘일수 있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 수산성과 합경남도수산관리국에서는 포구마다에 만년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리기 위한 어로건설을 파강히 전개하면서 방류어업부문에 힘을 넣어 가까운 몇해안에 힘들게 더 많은 물고기야 차려지도록 전망성있게 일판을 벌리겠다고. 본사기자 전 성삼

벼모종류별씨뿌리기 70%계선 돌파

년간계획, 상반기계획완수자들이 늘어난다

「위대한 장군님 펼쳐주신 황금벌의 새 력사를 대대손손 빛내어나가자!」라는 공동구호를 외치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각지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벼모기르기에 혁신적성과를 거두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4월 중순현재 영양단지모, 영양알모, 영양맹상모 등 벼모종류별씨뿌리기를 70%이상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 물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영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하며 생산조직과 지도를 실정에 맞게 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올해 농사를 본때있게 지어 위대한 장군님 펼쳐주신 황금벌의 새 력사를 대대손손 빛내어나갈 불같은 각오를 안고 벼모기르기를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내밀고있다.

각지 농촌에서 정치사업의 무대를 모판으로 옮기고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열의와 기세를 돋우어주며 협동력이 알곡증산투쟁으로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농업성 일군들은 올해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모기르기를 실속있게 하는데서 찾고 생산조직과 지도를 실정에 맞게 해나가고있다. 그들은 올해 최악의 가뭄을 예견하여 물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혁신적인 방도를 내놓고 완강하게 실천해나가고있다. 평안북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주체농법을 보다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선진시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결사관철할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며 씨뿌리기를 일제계획대로 내밀어 남먼저 끝냈다. 도와 시, 군농업지도기관 일군들은 모든 농장들에서

영농농정별로 준비를 면밀히 한데 기초하여 해당 지방의 자연기후조건과 구체적인실정을 고려하여 씨뿌리기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현장지도에 힘을 넣었다. 통천군에서는 기상기후조건이 수시로 달라지는데 맞게 일정계획을 질적으로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현실성있는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씨뿌리기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관산, 박천군에서는 생육기간이 길면서 낮은 온도에 대한 적응성이 센 품종들을 빨리, 생육기간이 짧으면서 낮은 온도에 견디는 약한 품종들은 늦게 씨뿌리는 원칙에서 시기를 정하고 그에 맞게 일정계획을 수행하였다. 함경북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을 가장 정당한 지침으로,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견결히 옹호할 배심으로 예국의 구슬땀을 바쳐가며 씨뿌리기계획을 90%

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성실한 땀을 바치는 참된 애국자가 될 뜨거운 마음들이 토양산도조절을 바로하며 박박관리, 온도관리를 기술적으로 구대해나가고있다. 황해북도 사리원시, 은파군에서는 물주기를 바로하여 토양산도를 정확히 보장하면서 벼모판관리를 힘을 넣고있다. 남포시에서 엄폐해를 막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들을 세우며 물관리를 잘하여 벼모기르기성과를 높여나가고있다. 시 일군들은 간식지는면적이 많은 조건에 맞게 모판자리를 다시 정하고 물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시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가렬한 전회의 불길속에서 전 시식량생산을 보장한 전세대농민들의 영웅적투쟁정신을 본받아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며 물을 충분히 확보하고 씨뿌리기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정영철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새로운 평양신, 평양속도창조로 일군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당국경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선사위원회의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천성산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고있는 이곳 로동계급에서 년간계획, 상반기계획완수자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현재 공장적으로 11명의 년간계획완수자와 121명의 상반기계획완수자들이 배출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 여러차례 공장을 찾으신데 베풀어 주신 헌정은 사랑과 은총의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에 펼쳐나신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로력적외력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공장의 일군들은 현장에 내려가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을 총괄탐사하기 위한 화신정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는 한편 원료와 자재보장대책을 신속히 마련해내고 로동자들의 후방공급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직포종합직장의 로동계급이 증산투쟁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8명의 년간계획완수자들을 배출한 직포종합직장 1직포직장의 직포공들이 모진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사명관동지께서 주신 임무를 무조건 수행한

항일유격대 재포대원들의 그 정신으로 기대마다 만가동, 만부하를 걸어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맡아주시신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퍼고 건방종합직장 로동자들은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할 일념에 합력하여 기존대회방법과 능률적인 설치기방법을 받아들여면서 매일 계획을 초과수행하였다. 방직종합직장의 로동자들도 년초부터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기어이 달성하기 위해 뛰고 또 뛰었다.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린 화학섬유방직종합직장에서 10대선회방법이 상반기계획을 앞당겨 끝냈다.



벼모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하고 있다. -문덕군 통림협동농장에서-

박봉주총리 평양화학제품공장 현지료해

열화같은 위인흥모의 열기속에 태양의 꽃은 끝없이 만발하리라

온 인류가 칭송하는 절세위인에 대한 그리움의 화폭

제 17차 김일성화축전장을 돌아 보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일성화는 주체의 해방로 세계인민들이 나날길 걸을 뿐 아니라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을 상징하는 태양의 꽃이며 자주 시대 인류의 마음속에 피어난 위인칭송의 꽃입니다.》

위인영생과 그리움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이 모셔져있는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관의 중앙홀에는 인민무력부전시대와 외무부전시대가 펼쳐져있었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천수백상의 김일성화로 훌륭히 형성된 전시대앞에서 걸음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인민무력부전시대 강사의 이야기는 뜨거웠다.

강사는 뜻깊은 올해의 김일성화 축전을 빛나게 장식할 열의밑에 인민군장병들이 지난해 가을부터 북부고산지대의 산골짜기들을 수없이 오르내리며 김일성화 재배에 좋은 많은 이기들을 채취해왔을 뿐 아니라 각지에서 수백kg의 참나무수피를 마련하여 보내온데 대해 말하였다.

진행되고있다. 열마진 우리는 불멸의 꽃 김일성화의 활짝 핀 꽃바다가 펼쳐진 축전장을 돌아보면서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 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 해외동포들과 외국인의 벗들의 위인칭송의 세찬 열기를 다시금 뜨겁게 느끼었다.

지난 시기에도 그러하였지만 올해의 김일성화재배에서도 앞장서 실 불같은 각오를 안고 오랜 나날 바쳐온 인민군장병들의 충성의 마음에 대해 듣는 우리의 감동은 컸다.

수백상의 진귀한 김일성화로 꽃바구니를 형성하고 철을 앞당겨 피운 여러가지 꽃들이 주연장상을 한 외무부전시대에서도 우리는 이런 축전장을 의의있게 빛내기 위해 기울여온 이곳 인민군들과 종업원들의 마음을 가슴 뜨겁게 읽었다.

이제 축전장의 2층에 들어선 우리의 입에서는 저도모르게 탄성이 터져올랐다.

한글처럼 모란봉의 숲속에 앉아 말한 하던 싱그러움 꽃향기가 물씬 풍겨오는 속에 불수룩 황홀한

태양의 꽃바다가 펼쳐졌기때문이었다. 더욱이 우리의 감탄을 자아낸 것은 《위대한 태양의 축복속에 만발한 불멸의 꽃 김일성화》라는 총적주제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뜻이 깊은 부주제들을 제시해준으로써 축전의 사상적대를 보다 뚜렷이 강조한것이었다.

우측에는 《민족재생의 은인, 절세의 애국자》라는 부주제의 글발과 함께 주제(1912)년 4월 15일 만경대고향집에서 주체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어버이수령님께서 한평생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들을 시기별로 직관화하였다.

부주제글발아래에 위치한 경흥지도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전시대들은 어버이수령님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과 더불어 태양의 꽃바다속에 영생하신다는 진리를 조형예술적으로 잘 형성하였다.

부주제와 통일성을 보장하면서 시도 단위의 특성을 살린 전시대들을 통하여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위인적공포와 업적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여주기 위해 바쳐온 해당 단위 인민

들과 종업원들의 고심어린 노력을 엿보았다. 이어 우리는 류달리 질을 향기를 풍기며 꽃바다에 수심층이 김일성화들이 피어나 그리움의 세찬 열기를 더해주는 총련 중앙상임위원회전시대와 제중, 제로동포들의 지성도 뜨겁게 여타하는 온 민족의 뜨거운 마음을 가슴뜨겁게 안아볼수 있었다.

축전장의 좌측에 새겨진 《만민의 어버이,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라는 부주제글발과 함께 외국의 벗들의 다함없는 호모의 마음이 어버이수령님의 활짝 피어나고있는 조국과 더불어, 부강번영하는 조국과 더불어 우리 해외동포들의 긍지와 자부심은 오늘 끝났다.

지구상에 국가가 생겨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전 나라는 떠나는 사람없는 운명문제는 그 어느 나라에서나 해결하기 어려운 정치경제로 되고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스로운 손길아래 력사상 처음으로 해외동포들의 운명문제가 빛나게 해결되고 대대로 존엄높은 태양 민족의 한식술로 보람찬 삶을 누리게 되었으니

어찌 세월이 흘렀다고 그들의 가슴속에서 위인칭송의 열기가 식어질수 있랴.

하기에 우리와 만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전시대 강사는 김일성화가 만발한 전시대에 정중히 모신 제일조선학생들을 한층에 안아 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진편찬을 우리들께서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시는 내 조국은 총련의 크나큰 힘이고 창창한 미래라고 격정에 젖어 이야기하였다. 수백상의 김일성화로 주체의 위인적공포를 대외문화연락위원회전시대에서도 우리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로고를 오늘도 잊지 못하는 온 민족의 뜨거운 마음을 가슴뜨겁게 안아볼수 있었다.

축전장의 좌측에 새겨진 《만민의 어버이,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라는 부주제글발과 함께 외국의 벗들의 다함없는 호모의 마음이 어버이수령님의 활짝 피어나고있는 조국과 더불어, 부강번영하는 조국과 더불어 우리 해외동포들의 긍지와 자부심은 오늘 끝났다.

지구상에 국가가 생겨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전 나라는 떠나는 사람없는 운명문제는 그 어느 나라에서나 해결하기 어려운 정치경제로 되고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스로운 손길아래 력사상 처음으로 해외동포들의 운명문제가 빛나게 해결되고 대대로 존엄높은 태양 민족의 한식술로 보람찬 삶을 누리게 되었으니

어찌 세월이 흘렀다고 그들의 가슴속에서 위인칭송의 열기가 식어질수 있랴.

하기에 우리와 만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전시대 강사는 김일성화가 만발한 전시대에 정중히 모신 제일조선학생들을 한층에 안아 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진편찬을 우리들께서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시는 내 조국은 총련의 크나큰 힘이고 창창한 미래라고 격정에 젖어 이야기하였다. 수백상의 김일성화로 주체의 위인적공포를 대외문화연락위원회전시대에서도 우리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로고를 오늘도 잊지 못하는 온 민족의 뜨거운 마음을 가슴뜨겁게 안아볼수 있었다.

축전장의 좌측에 새겨진 《만민의 어버이,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라는 부주제글발과 함께 외국의 벗들의 다함없는 호모의 마음이 어버이수령님의 활짝 피어나고있는 조국과 더불어, 부강번영하는 조국과 더불어 우리 해외동포들의 긍지와 자부심은 오늘 끝났다.

지구상에 국가가 생겨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전 나라는 떠나는 사람없는 운명문제는 그 어느 나라에서나 해결하기 어려운 정치경제로 되고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스로운 손길아래 력사상 처음으로 해외동포들의 운명문제가 빛나게 해결되고 대대로 존엄높은 태양 민족의 한식술로 보람찬 삶을 누리게 되었으니

어찌 세월이 흘렀다고 그들의 가슴속에서 위인칭송의 열기가 식어질수 있랴.

하기에 우리와 만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전시대 강사는 김일성화가 만발한 전시대에 정중히 모신 제일조선학생들을 한층에 안아 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진편찬을 우리들께서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시는 내 조국은 총련의 크나큰 힘이고 창창한 미래라고 격정에 젖어 이야기하였다. 수백상의 김일성화로 주체의 위인적공포를 대외문화연락위원회전시대에서도 우리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로고를 오늘도 잊지 못하는 온 민족의 뜨거운 마음을 가슴뜨겁게 안아볼수 있었다.

축전장의 좌측에 새겨진 《만민의 어버이,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라는 부주제글발과 함께 외국의 벗들의 다함없는 호모의 마음이 어버이수령님의 활짝 피어나고있는 조국과 더불어, 부강번영하는 조국과 더불어 우리 해외동포들의 긍지와 자부심은 오늘 끝났다.

지구상에 국가가 생겨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전 나라는 떠나는 사람없는 운명문제는 그 어느 나라에서나 해결하기 어려운 정치경제로 되고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따스로운 손길아래 력사상 처음으로 해외동포들의 운명문제가 빛나게 해결되고 대대로 존엄높은 태양 민족의 한식술로 보람찬 삶을 누리게 되었으니

어찌 세월이 흘렀다고 그들의 가슴속에서 위인칭송의 열기가 식어질수 있랴.

하기에 우리와 만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전시대 강사는 김일성화가 만발한 전시대에 정중히 모신 제일조선학생들을 한층에 안아 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진편찬을 우리들께서

온실에서 김일성화를 많이 피웠지만 전시대에 다 전시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무척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번 축전 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같은 조건에서도 더 많은 김일성화를 전시할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머릿속고고있는중이라고 말하였다.

우리를 안내하던 조선김일성화 김정일화위원회 책임부원 립영금동무는 이것은 축전에 참가한 단위인민군도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시중 깊은 감명속에 진행된 우리의 취재는 여기서 끝났다. 하지만 쉬이 발걸음을 땀수 없었다.

우리의 머리속에는 해마다 성대히 열리는 김일성화축전이 다시금 불꽃 들었다.

그렇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해만 가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강성국가 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주고 야말 불타는 충정의 마음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축전장에 함께 열었다.

그에서이리라. 지구상의 수많은 화초전시회나 화초박람회들도 감히 흉내낼수 없는 아름다운의 꽃향기를 한가득 꽃망으로 이루는 나라는 어제도 오늘도 그러했지만 앞으로 더 영원히 조선박에 없을것이라고 온 인류가 한목소리로 격찬하고있는 것은.

우리는 김일성화축전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멸성을 노래하며 불멸의 꽃향기를 온 천만군민이 어떻게 되어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속에서도 그렇듯 일심단결의 성세를 이루고 조국보위와 강성국가건설에서 승리의 포성을 연이어 울려가고있는것인가에 대하여 말한다.

김일성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넘쳐나는 축전장을 나서는 우리의 귀에는 어디선가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만민의 열화같은 그리움과 흥모의 열기속에 끝없이 만발할 태양의 꽃향기가 가득 실려오는 뜻깊은 노래소리다.

글쓴이: 김일성화축전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멸성을 노래하며 불멸의 꽃향기를 온 천만군민이 어떻게 되어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속에서도 그렇듯 일심단결의 성세를 이루고 조국보위와 강성국가건설에서 승리의 포성을 연이어 울려가고있는것인가에 대하여 말한다.

김일성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넘쳐나는 축전장을 나서는 우리의 귀에는 어디선가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만민의 열화같은 그리움과 흥모의 열기속에 끝없이 만발할 태양의 꽃향기가 가득 실려오는 뜻깊은 노래소리다.

글쓴이: 김일성화축전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멸성을 노래하며 불멸의 꽃향기를 온 천만군민이 어떻게 되어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속에서도 그렇듯 일심단결의 성세를 이루고 조국보위와 강성국가건설에서 승리의 포성을 연이어 울려가고있는것인가에 대하여 말한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구상에는 수천수만 가지의 꽃들이 피고있지만 김일성화처럼 깊은 뜻을 안고있는 꽃은 없습니다.》

김일성화명명 50꽃이 되는 뜻깊은 올해의 태양절을 맞으며 인도네시아, 기네, 로제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김일성화 전시회,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지난 14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도네시아방문 50꽃, 김일성화명명 50꽃을 맞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보고식물원에 대한 참관식이 있었다.

여기에 관계부 인사들 100여명이 참가하였다. 보고식물원의 한 국장은 김일성화는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과 더불어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 널리 보급되고있다고 말하였다.

13일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는 김일성화전시회가 개막되었다. 전시회에는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서기들을 비롯한 경제, 사회적, 출판보도계 인사들 110여명이 참가하였다.

300여명의 김일성화가

전시되어있는 전시회장을 돌아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서기들은 김일성화는 제국주의의 전횡과 강권을 반대하고 새 사회건설을 지향하고있는 진보적인인류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고 말하였다.

김일성화명명 50꽃이 되는 뜻깊은 올해의 태양절을 맞으며 인도네시아, 기네, 로제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김일성화 전시회,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인도네시아아선봉자당의 한 인사는 한 나라의 수반이 조선의 김일성주석께 아름다운 꽃을

기네조선친선회의 한 인사는 김일성화는 날이 갈수록 세계전역에 공인되는 명화로서, 인류공동의 재보라고 말하였다.

기네 김일성화김정일화협회 부위원장장은 김일성화를 본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화에 담긴것은 깊은 뜻과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김일성주석을 열렬히

인도네시아아선봉자당의 한 인사는 불멸의 꽃 김일성화가 열정의 색을 잃지 않듯이 조선과 인도네시아인민사이의 친선은 영원히 변치 않을것이라고 격정에 젖어 말하였다.

지난 10일 기네 김일성화전시회에서는 김일성화김정일화협회 부위원장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김일성화명명 50꽃을 맞으며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에 반하여 아프리카대륙에 활짝 피어나 50상의 김일성화는 참관자들의 깊은 감동을 자아냈다.

경도의 마음을 안고 만경대고향집에 꽃다발을 진정하였다. 이어 그들은 이력사의 집에 깃들여있는 절세위인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가분들의 애국적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련방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은 조선인민의 운명개척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유서깊은 곳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것은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일성동지의 업적이 위대하기때문이다.

그들의 혁명사상은 대를 이어 계승되어야 할 위대한 사상이다. 련방비서일행은 또한 제17차 김일성화축전장과 조국애방전승리기념관 등을 참관하였다.

평양역에서 김진국 해외동포사업국 국장이 전승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올리베르 요니스카이트 오스트리아로조련병 좌익블랙 련방비서일행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이 떠나갔다

기네조선친선회의 한 인사는 김일성화는 날이 갈수록 세계전역에 공인되는 명화로서, 인류공동의 재보라고 말하였다.

기네 김일성화김정일화협회 부위원장장은 김일성화를 본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화에 담긴것은 깊은 뜻과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김일성주석을 열렬히

인도네시아아선봉자당의 한 인사는 불멸의 꽃 김일성화가 열정의 색을 잃지 않듯이 조선과 인도네시아인민사이의 친선은 영원히 변치 않을것이라고 격정에 젖어 말하였다.

지난 10일 기네 김일성화전시회에서는 김일성화김정일화협회 부위원장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김일성화명명 50꽃을 맞으며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에 반하여 아프리카대륙에 활짝 피어나 50상의 김일성화는 참관자들의 깊은 감동을 자아냈다.

경도의 마음을 안고 만경대고향집에 꽃다발을 진정하였다. 이어 그들은 이력사의 집에 깃들여있는 절세위인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가분들의 애국적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련방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은 조선인민의 운명개척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유서깊은 곳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것은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일성동지의 업적이 위대하기때문이다.

그들의 혁명사상은 대를 이어 계승되어야 할 위대한 사상이다. 련방비서일행은 또한 제17차 김일성화축전장과 조국애방전승리기념관 등을 참관하였다.

평양역에서 김진국 해외동포사업국 국장이 전승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올리베르 요니스카이트 오스트리아로조련병 좌익블랙 련방비서일행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이 떠나갔다

기네조선친선회의 한 인사는 김일성화는 날이 갈수록 세계전역에 공인되는 명화로서, 인류공동의 재보라고 말하였다.

기네 김일성화김정일화협회 부위원장장은 김일성화를 본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화에 담긴것은 깊은 뜻과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김일성주석을 열렬히

인도네시아아선봉자당의 한 인사는 불멸의 꽃 김일성화가 열정의 색을 잃지 않듯이 조선과 인도네시아인민사이의 친선은 영원히 변치 않을것이라고 격정에 젖어 말하였다.

지난 10일 기네 김일성화전시회에서는 김일성화김정일화협회 부위원장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김일성화명명 50꽃을 맞으며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에 반하여 아프리카대륙에 활짝 피어나 50상의 김일성화는 참관자들의 깊은 감동을 자아냈다.

경도의 마음을 안고 만경대고향집에 꽃다발을 진정하였다. 이어 그들은 이력사의 집에 깃들여있는 절세위인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가분들의 애국적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련방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은 조선인민의 운명개척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유서깊은 곳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것은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일성동지의 업적이 위대하기때문이다.

그들의 혁명사상은 대를 이어 계승되어야 할 위대한 사상이다. 련방비서일행은 또한 제17차 김일성화축전장과 조국애방전승리기념관 등을 참관하였다.

평양역에서 김진국 해외동포사업국 국장이 전승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올리베르 요니스카이트 오스트리아로조련병 좌익블랙 련방비서일행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이 떠나갔다

기네조선친선회의 한 인사는 김일성화는 날이 갈수록 세계전역에 공인되는 명화로서, 인류공동의 재보라고 말하였다.

기네 김일성화김정일화협회 부위원장장은 김일성화를 본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화에 담긴것은 깊은 뜻과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김일성주석을 열렬히

인도네시아아선봉자당의 한 인사는 불멸의 꽃 김일성화가 열정의 색을 잃지 않듯이 조선과 인도네시아인민사이의 친선은 영원히 변치 않을것이라고 격정에 젖어 말하였다.

지난 10일 기네 김일성화전시회에서는 김일성화김정일화협회 부위원장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김일성화명명 50꽃을 맞으며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에 반하여 아프리카대륙에 활짝 피어나 50상의 김일성화는 참관자들의 깊은 감동을 자아냈다.

경도의 마음을 안고 만경대고향집에 꽃다발을 진정하였다. 이어 그들은 이력사의 집에 깃들여있는 절세위인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가분들의 애국적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련방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은 조선인민의 운명개척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유서깊은 곳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것은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일성동지의 업적이 위대하기때문이다.

그들의 혁명사상은 대를 이어 계승되어야 할 위대한 사상이다. 련방비서일행은 또한 제17차 김일성화축전장과 조국애방전승리기념관 등을 참관하였다.

평양역에서 김진국 해외동포사업국 국장이 전승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올리베르 요니스카이트 오스트리아로조련병 좌익블랙 련방비서일행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이 떠나갔다

기네조선친선회의 한 인사는 김일성화는 날이 갈수록 세계전역에 공인되는 명화로서, 인류공동의 재보라고 말하였다.

기네 김일성화김정일화협회 부위원장장은 김일성화를 본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화에 담긴것은 깊은 뜻과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김일성주석을 열렬히

인도네시아아선봉자당의 한 인사는 불멸의 꽃 김일성화가 열정의 색을 잃지 않듯이 조선과 인도네시아인민사이의 친선은 영원히 변치 않을것이라고 격정에 젖어 말하였다.

지난 10일 기네 김일성화전시회에서는 김일성화김정일화협회 부위원장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김일성화명명 50꽃을 맞으며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에 반하여 아프리카대륙에 활짝 피어나 50상의 김일성화는 참관자들의 깊은 감동을 자아냈다.

경도의 마음을 안고 만경대고향집에 꽃다발을 진정하였다. 이어 그들은 이력사의 집에 깃들여있는 절세위인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가분들의 애국적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련방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은 조선인민의 운명개척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유서깊은 곳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것은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일성동지의 업적이 위대하기때문이다.

그들의 혁명사상은 대를 이어 계승되어야 할 위대한 사상이다. 련방비서일행은 또한 제17차 김일성화축전장과 조국애방전승리기념관 등을 참관하였다.

평양역에서 김진국 해외동포사업국 국장이 전승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올리베르 요니스카이트 오스트리아로조련병 좌익블랙 련방비서일행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이 떠나갔다

기네조선친선회의 한 인사는 김일성화는 날이 갈수록 세계전역에 공인되는 명화로서, 인류공동의 재보라고 말하였다.

기네 김일성화김정일화협회 부위원장장은 김일성화를 본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화에 담긴것은 깊은 뜻과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김일성주석을 열렬히

인도네시아아선봉자당의 한 인사는 불멸의 꽃 김일성화가 열정의 색을 잃지 않듯이 조선과 인도네시아인민사이의 친선은 영원히 변치 않을것이라고 격정에 젖어 말하였다.

지난 10일 기네 김일성화전시회에서는 김일성화김정일화협회 부위원장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김일성화명명 50꽃을 맞으며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에 반하여 아프리카대륙에 활짝 피어나 50상의 김일성화는 참관자들의 깊은 감동을 자아냈다.

경도의 마음을 안고 만경대고향집에 꽃다발을 진정하였다. 이어 그들은 이력사의 집에 깃들여있는 절세위인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가분들의 애국적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련방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은 조선인민의 운명개척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유서깊은 곳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것은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일성동지의 업적이 위대하기때문이다.

그들의 혁명사상은 대를 이어 계승되어야 할 위대한 사상이다. 련방비서일행은 또한 제17차 김일성화축전장과 조국애방전승리기념관 등을 참관하였다.

평양역에서 김진국 해외동포사업국 국장이 전승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올리베르 요니스카이트 오스트리아로조련병 좌익블랙 련방비서일행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이 떠나갔다

기네조선친선회의 한 인사는 김일성화는 날이 갈수록 세계전역에 공인되는 명화로서, 인류공동의 재보라고 말하였다.

기네 김일성화김정일화협회 부위원장장은 김일성화를 본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화에 담긴것은 깊은 뜻과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김일성주석을 열렬히

인도네시아아선봉자당의 한 인사는 불멸의 꽃 김일성화가 열정의 색을 잃지 않듯이 조선과 인도네시아인민사이의 친선은 영원히 변치 않을것이라고 격정에 젖어 말하였다.

지난 10일 기네 김일성화전시회에서는 김일성화김정일화협회 부위원장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김일성화명명 50꽃을 맞으며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에 반하여 아프리카대륙에 활짝 피어나 50상의 김일성화는 참관자들의 깊은 감동을 자아냈다.

경도의 마음을 안고 만경대고향집에 꽃다발을 진정하였다. 이어 그들은 이력사의 집에 깃들여있는 절세위인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가분들의 애국적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련방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은 조선인민의 운명개척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유서깊은 곳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것은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일성동지의 업적이 위대하기때문이다.

그들의 혁명사상은 대를 이어 계승되어야 할 위대한 사상이다. 련방비서일행은 또한 제17차 김일성화축전장과 조국애방전승리기념관 등을 참관하였다.

평양역에서 김진국 해외동포사업국 국장이 전승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올리베르 요니스카이트 오스트리아로조련병 좌익블랙 련방비서일행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이 떠나갔다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시는 내 조국은 총련의 크나큰 힘이고 창창한 미래라고 격정에 젖어 이야기하였다. 수백상의 김일성화로 주체의 위인적공포를 대외문화연락위원회전시대에서도 우리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로고를 오늘도 잊지 못하는 온 민족의 뜨거운 마음을 가슴뜨겁게 안아볼수 있었다.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시는 내 조국은 총련의 크나큰 힘이고 창창한 미래라고 격정에 젖어 이야기하였다. 수백상의 김일성화로 주체의 위인적공포를 대외문화연락위원회전시대에서도 우리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로고를 오늘도 잊지 못하는 온 민족의 뜨거운 마음을 가슴뜨겁게 안아볼수 있었다.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시는 내 조국은 총련의 크나큰 힘이고 창창한 미래라고 격정에 젖어 이야기하였다. 수백상의 김일성화로 주체의 위인적공포를 대외문화연락위원회전시대에서도 우리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로고를 오늘도 잊지 못하는 온 민족의 뜨거운 마음을 가슴뜨겁게 안아볼수 있었다.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시는 내 조국은 총련의 크나큰 힘이고 창창한 미래라고 격정에 젖어 이야기하였다. 수백상의 김일성화로 주체의 위인적공포를 대외문화연락위원회전시대에서도 우리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로고를 오늘도 잊지 못하는 온 민족의 뜨거운 마음을 가슴뜨겁게 안아볼수 있었다.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시는 내 조국은 총련의 크나큰 힘이고 창창한 미래라고 격정에 젖어 이야기하였다. 수백상의 김일성화로 주체의 위인적공포를 대외문화연락위원회전시대에서도 우리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로고를 오늘도 잊지 못하는 온 민족의 뜨거운 마음을 가슴뜨겁게 안아볼수 있었다.

태양의

천출명장 김일성 : 미국을 슬프게 하다

나 딸 리 야 벨 로 꼬 빼 또 바

전세계를 뒤덮고있던 두번째 세계대전의 화약배가 사라지자 유럽언론계에서는 격진장을 제정한 사람만이 전쟁에 대하여 논할 도덕적권리가 있다는 주장이 자주 울려나왔다.

그렇다. 타당한 주장이라고 본다. 그런데 어찌하여 폭음소리 한번 들지 못한 이로서야서 필자자 그 도덕적권리를 뛰어넘어 지난 세기 50년대의 조선의 전승에 대한 글을 쓰게 되었는가고 물을수 있다. 다년간의 언론활동과 사회활동경력이 그 도덕적권리를 벗어나게 하였는가 아니다.

1992년 4월 조선의 수령이신 김일성주석 탄생 8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우리 《근로하는 로씨야》 운동대표단성원들은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았다. 나는 지금도 그의 걸출한 위인적풍모에 매혹되어 탄복하던 그때를 잊지 못한다.

1. 수천년을 흔들어놓은 중대사변

나는 이 글을 세계현대사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기록된 중요시각에 대한 서술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력사의 벽시계는 지금으로부터 60여년 전인 1953년 7월 27일 2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조선의 전승과 미국의 패전이 온 지구에 선포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흐르고있었다.

바로 이 시각에 조선의 천출명장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조선정전협정전문문건에 친히 비준을 하시었던것이다.

이 력사적순간의 목격자, 기록자가 되어 그것을 세상에 제일먼저 전한 외신기자들중에는 당시 쏘련기자도 있었다.

1952년부터 조선주제 《쁘라우다》지 특과기자로 활약한 올라지미프 톨스토예프였다. 그는 자기의 회상록에 이렇게 썼다.

《나와 나의 안해 마마라는 내가 50여년전에 찍은 조선정전협정문에 비준하시는 천체적명장인 김일성원수의 사진을 가보로 고이 보관하고있다. 그이께서는 흰원수베복을 입고계시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으로 오셨던 협정문이 들어있는 문서철을 받으시고 비준하시었다. 장대에서는 기쁨과 감격의 파도가 끓어올랐다. 모두가 김일성원수를 열렬히 축하하였다.

내가 영광스럽게도 력사에 남김 김일성주석의 모습은 이른바 《세계적인 강대국》과 맞서 청승론 공화국을 굳건히 지켜내신 20세기의 영웅, 위대한 정적의 수호자의 모습이었다.》

그렇다. 조선의 전승은 천출명장 김일성주석께서 이룩하신 승리였다.

72시간안에 조선을 정복할것이라고 장담하던 미국은 조선인민들이 평행듯이 그 72시간이 수백번도 더 반복되어 2만 7,000여시간으로, 날수로 1,129일로, 년수로 3년이 되어 저들이 패할것은 몰랐다.

《강대성》의 신뢰를 함급모자처럼 들고 다니며 자랑하던 대아메리카제국이 조선인민앞에 횡기를 들게 되고 내리막길의 시초에 들어서서 최대의 정치군사적비극을 통감할줄은 더더욱 몰랐다. 정전협정조인후 방승미이크알에 나타난 당시 미국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수줍은 어조로 《대가는 컸다. 이것은 비극적인 것이었고 쓰라린것이였다.》고 토설하였다.

서방의 한 종군기자는 미국력사에서 항복에서 서명한 첫 패전장군이 된 클라크의 열혈에서는 《중전의 그 당당한 기개로, 위용도, 위신도 간곳없이 사라지고 두 줄기의 눈물만이 흘러내렸다.》고 썼으며 정전협정조인문건이 수표한 후 클라크는 슬퍼 울었다고 그의 늙은 어머니가 회고하였다 한다.

세계가 보듯처럼 미국의 《강대성》의 신뢰를 슬픔으로 바꾸어놓은 중대사변이 바로 조선에서 일어났던것이다.

조선의 1,129일의 전승이야말로 인류수천년사의 중대사변이라고 나는 주장하게 된다.

이제부터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세가지 근거에 대하여 서술해보고자 한다.

조선의 전승은 작은 나라가 대국을 이기는 력사의 서막을 열어놓았다. 이것이 첫번째 근거이다.

스웨리에와 인디아사람들은 지난 수천년간에 세계적으로 1만 4,500여치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1만 수천치의 전쟁은 대체 어떤 전쟁들이었는가. 제국들의 침략전쟁, 정복전쟁이 기본이었다고 본다.

바꾸어 말해보면 인류전쟁사는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이 정치적, 군사경제적으로 힘이 약한 나라, 작은 나라들을 침략한 전쟁사였다고도 말할수 있다.

수천년 전쟁사의 이 거치른 흐름속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력대 제국들의 장과 칭, 총과 대포앞에 무서운 재난을 당하여 왔는가.

인류는 1만 수천치의 전쟁에서 총 36억 4,000여만명을 잃었다. 전쟁사자들은 손실된 물질문화적재부를 금으로 환산하면 너비 75km, 두께 10m되는 금피로 지구를 한바퀴 돌릴수 있다고까지 분석하고있다. 전쟁으로 인한 손실의 거의 전부가 작은 나라들의것이였다다는것은 론박할 여지도 없다.

제단이 이처럼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제국들앞에 정복당하고 굴복당하며

있지 못한다. 나는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 경축행사 때에도 조신을 방문하였다.

평양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조선전쟁시기 전투가 벌어진 곳곳에 대한 여러 차례의 참관, 많은 전쟁로병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리고 조선전쟁에 관한 자료들과 인류전쟁사를 연구하면서 조선의 1950년대의 전승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그 깊은 인상의 파도가 군사기도, 전쟁사기도 아닌 나로 하여금 도덕적권리를 초월하여 모스크바에서 《7.27-승리하는 조선》이라는 제목의 도서를 집필발행케 하였다. 하지만 나의 심층에서는 조선전쟁승리의 비결이 김일성주석의 출중한 명도에 있었다는 사실과 전승의 세계사적의미를 세상에 크게 전하고싶은 충동이 더욱 커졌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다시 붓을 들게 하였다는것을 서두에서 부연하게 된다.

머리속이고 사느것을 력사의 승명처럼 감수하여왔다. 물론 제국들의 침략과 정복을 반대하여 일어난 작은 나라들의 피어린 봉기들, 폭동들, 전쟁들이 력사의 전진에 큰 자욱을 남겼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수천년이 흐르는 장구한 기간 인류는 작은 나라라도 대국을 이기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를 애타게 기다려왔다. 이 갈망에 대답한것이 조선의 전승이었다.

20세기 력사의 대하에 사색의 노를 저어보자.

조선반도가 화염속에서 잤을 때 행성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였는가. 대국의 정복의 력사가 조선에서 또다시 반복되는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이었다. 리유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1세기에는 로마제국, 13세기에는 몽골제국, 19세기에는 대영제국, 20세기에는 도이쎄랜드제국이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한 피의 력사를 결코 잊지 않고있었던것이다.

그런데 수천년동안의 이 재난의 반복을 마침내 멈춰세울것이 바로 조선의 전승이었다.

이 전승이 수억만 사람들의 불안과 우려를 가져주었던것이다.

그렇다. 조선의 전승은 비록 나라는 크지 않아도 위대한 정도자를 모시면 대국도 이길수 있다는 것을 이 행성에 장엄히 선언하였다.

그렇다면 중대사변으로 보게 되는 두번째 근거는 무엇인가.

원자탄 하면 사람들은 미국대통령 트루먼을 먼저 상기할것이다. 트루먼은 1945년 8월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투하명령을 내렸다.

동서방의 언론들은 트루먼이 원자탄을 투하한 목적이 일본을 항복케 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매듭지으려는데 있었다고 분석을 가하였다.

하나 나는 그것이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이 아니라 앞으로 미국이 행로 조선을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핵전쟁준비에 목적을 두고있었다는데 대하여 더 강조하고싶다.

전자의 의미보다 후자의 의미는 결코 가벼운것이 아니었다.

사실상 미국은 조선전쟁을 1950년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포성이 멧기 전에 시작하였던것이다. 그후의 사태발전이 이것을 립증해준다.

미국이 일본의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한 다음다음날인 1945년 8월 11일 미국무성과 폭군성, 해군성의 《3성조정위원회》가 38° 선을 경계선으로 하여 조선의 이남지역을 강점할 비밀모의를 한 사실, 중요하게는 미국이 1945년 7월 첫 원자탄시험을 한 때로부터 그 생산에 박차를 가하여왔다는 사실이 큰 무게를 가지고 그것을 실증하고있다.

더 중요한것은 무엇인가. 조선전쟁을 개시한 트루먼이 원자탄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핵포괄성명을 발표하였다는것과 제3차 세계대전준비를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사실이다.

여기에 《크리스마스총공세》가 총회적으로 열렸던때 트루먼과 기자들사이에서 있었던 문답의 일부를 적어본다.

《대통령, 조선의 사태에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조선의 새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지난 시기 언제나 그렇게 하여왔듯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온갖 수단을 다 취할 용의가 있다.》

《그 수단에는 원자폭탄도 포함되느냐?》

《우리가 소유하고있는 온갖 무기가 다 포함된다.》

《당신은 소유하고있는 무기의 전부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원자폭탄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것을 의미하느냐?》

《원록에 대해서는 언제나 적극적인 고려가 돌려지고있다. ...》

기자회견후 《미국 원자탄사용을 적극 고려》라는 내용의 기사들이 즉시 세계에 전해져 사람들을 격분케 하였다.

이처럼 당시 미국은 조선에서의 원자탄 사용을 공공연히 떠들었다.

여기서 언급하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로씨야교수 까차승스끼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은 쏘련의 대도시 20개를 원자탄으로 공격할것을 중요한내용으로 하는 전쟁을 1949년에 시작

할것이라는 쿠비문건을 만들었다. 이것을 알아차린 쏘련은 전후복구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하였지만 군사경제적잠재력을 총동원하여 1949년에 원자탄시험에서 성공하였다.

이 사실은 미국이 조선전쟁을 세계화하고 핵전쟁화한다면 쏘련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를 너무나 명백히 해주었다.

다시 본문제이야기로 넘어가자. 외인들은 트루먼이 조선전쟁을 시점으로 조선과 중국, 쏘련을 핵으로 타격하여 7억의 인구를 전멸시킬것을 계획하였다고 전하였다.

미군사기밀기밀들이 공개한 문건들에는 미국대통령 아이젠하워도 조선전쟁에서의 원자탄 즉시사용을 5차례나 주장하였다고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미국의 핵전쟁기도는 조선의 전승으로 산산이 부서져나갔다.

미국은 전쟁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을 때마다 《원자탄 즉시사용》이라는 최후통첩장을 내흔들면서 패배의 전멸에서 벗어나려고 모지름을 썼다. 그렇지만 원자탄위협앞에 놀랄 조선이 아니었다. 굴복할 조선은 더욱 아니었다.

조선의 전략전술적위력과 사상정신적위력이라는 두 힘이 미국의 핵전쟁기도를 짓부시지 못하였더라면 세계에 핵참화가 휩쓸어졌었다. 반복컨대 제2차 세계대전의 재대미가 거저지기도 없었겠어. 전쟁이 일어나 한순간에 인류문명을 구석기시대로 되돌아가게 하는 무서운 《핵억울》이 닦쳐왔을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보면 세계적인 판도에서 핵바섯구름을 미리막고 평화의 푸른 하늘을 지켜낸 조선전승의 의미는 참으로 거대한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중대사변으로 보는 세번째 근거를 론할 차례가 되었다.

세계문학사가 남김 두가지 주장을 먼저 언급하고싶다.

18세기 영국작가 스위프트의 정치론설 《동맹자들의 행동》이 영프전쟁을

2. 3대승리철학으로 이기다

조선반도에서 총소리가 멎었다. 그러나 백악관과 펜타곤은 미국을 슬프게 한 전쟁의 책임을 두고 옥신각신하고있었다. 이때 미국 《뉴욕 타임스》지에 실린 한 서방군사평론가의 논평이 위상론의 책략가들에게 훌륭한 《훈시》를 주었다.

《조선전쟁이 왜 실패하였는가. 월가의 상인들이 애초 복제군을 우습게 여긴것부터가 돌이킬수 없는 오류였다. 그들이 약자인가? 아니다. 전쟁행정이 보여주다시피 그들은 무장장비는 열세였어도 특이한 전략과 전술, 변화무쌍한 전법에 의거하여 싸우는 강자였다. 미국의 장군들만하여도 매뉴게나마 상대한 군통수 김일성이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유격전력의 능수라는 점에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했다.》

매우 타당성있는 주장이었다고 생각한다.

김일성주석은 벌써 1930년대와 1940년대의 항일대전에서 천체적인 군사전략가로, 천출명장으로 명성을 떨치신분이시였다.

주석께서는 아직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전략과 전법, 뛰어난 명군술로 일본의 100만 대군과 싸워 이기시였다.

기고만장의 독술에 의한 미국의 장수들이 이에 대하여 알수 없었다. 패전의 슬픈 눈물은 이 무지가 실어준것이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전쟁에서 탁월한 군사사상을 초적으로 하는 3대승리철학으로 제국주의대군을 굴복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무엇보다도 조선식의 전략과 전법으로 이기는 승리철학으로 전승을 안아오시였다. 주석께서 창시하신 멧가지 전략부터 보자.

기본법에는 적의 불의의 침공을 맞받아나가는 전략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여겨졌다.

인류전쟁사의 능이 쓴 철문을 열어제끼면 다음의 사실이 첫눈에 띄었다.

제2차 세계대전시 프랑스, 네델란 드, 벨기에, 그리스, 유고슬라비아(당시)를 포함하여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히틀러군대의 불의의 첫 침공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하여 몇주일 지어 며칠만에 점령이라는 지옥을 당하지 않던 안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전쟁에서 기성의 군사공리를 따르지 않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적들의 불의의 침공을 즉시적인 반공격으로 맞받아나가지시였다. 미국이 조선전쟁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큰 병력과 군사장비들을 끌어들이자면 한달이상 시일이 걸려야 한다는것을 통찰하시고 적의 대우력이 남조선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전 전선에서 즉시적인 반공격전으로 넘어갈때 대한 명명을 주시였다. 이것은 참으로 명활무쌍한 전략이 아닐수 없다.

병술에는 제2전선을 보조적인 전선으로 설정할것이었다. 1812년의 로프전쟁사의 걸피를 먼저보아도 로씨야에서 기병이나 농민으로 조직된 직후전선이 형성

중결시켰다는 주장이며 19세기 미국의 너류작가 스트우의 소설 《로아저씨의 집》이 남북전쟁을 폭발시켰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두 주장은 사상정신적문제가 전쟁에 일정한 영향을 준다는 군사가들의 견해에 대한 반증으로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사상정신력의 역할은 수천년 차오 되어왔다.

반대로 전쟁에서 무기가 결정권을 가진다는 《무기만능론》이 인류전쟁사의 수천년을 지배하여왔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근대로부터 조선전쟁시기까지의 세계전쟁사의 폐지만을 먼저보아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영국의 《함대우세론》, 히틀러의 《땅크우세론》, 미국의 《항공우세론》이 그에 대한 실증으로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조선의 전승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조선의 전승은 사상정신력이 전쟁승리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을 과시한 위대한 전승이었다.

다시금 확인하건대 조선의 전승은 전쟁의 운명은 무기가 결정하는것이 아니라 사상정신력이 결정한다는 진리를 처음으로 깨우쳐준 력사적사건이었다. (조선병사들과 인민들이 발휘한 사상정신력의 승고한 세계에 대해서는 편의상 다음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통치로부터 해방된지 얼마 안되리 무기도 매우 부족하였지만 사상정신력이 전쟁에서 결정적인 힘이 되어 미국의 대포와 땅크, 함선과 비행기를 짓부서버리는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였다.

결국 조선의 사상정신난능론이 미국의 《무기만능론》을 무물쯤케 만들었다.

세계는 조선의 전승에서 사상정신난능론이 승리하는 새시대를 보았다.

그렇다면 여태껏 서술한 세가지 근거는 무엇을 결론케 하는가.

천출명장 김일성주석께서 안아오신 조선의 전승이야말로 거대한 정치군사적무게를 가지고 인류사의 수천년을 크게 흔들어놓은 중대사변이라는것이다.

되어 전쟁수행에서 보충적인 역할을 하였다. 주석께서는 조성된 군사정세와 산악이 많은 조선의 조건을 고려하여 최고사령부의 통일적인 지휘하에 정규군련합부대들로 직후에 강력한 제2전선을 형성하도록 하시였다. 이 전략 또한 비범한것이였다.

적극적인 방어전략 역시 전례를 따르던것이 아니었다.

전쟁사의 폐지들에는 방어전은 은폐와 참호, 교통호, 공병장애물에 의한 싸움으로 씌여져있다. 적의 공격에 힘겨우던지 프랑스의 《마지노선》을 보아도 총길이 380km의 방어진상에 5,000여개의 영구화력시설물들로 이루어진 《완성된 방어지대의 표본》으로 알려져있었다. 주석의 전략은 이와 다르시였다.

그이께서는 현대전쟁의 특성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산이 많은 조선의 지형에 맞게 강도를 기본으로 하는 은폐화된 방어전술을 골실하고 적을 철대면 적극적인 진지방어전략을 세우시였다. 이것 역시 독창적인 전략이다.

이번에는 주석께서 창조하신 많은 전법중 몇가지에 서술의 키를 옮겨보겠다.

세 전투의 승리에 대해서만 주목해보자. 첫번째는 조선해군의 어뢰정 네척이 미국의 중순양함 《블러드》호함선전단을 기습하여 단 세발의 어뢰로 이 함을 침몰시킨 승리이고 두번째는 하루사이에 조선의 프로펠러식비행기 2대가 미전략폭격기 《B-29》들과의 싸움에서 《공중우세》를 2대나 격추한 승리이다.

세번째는 조선인민군 용사들이 쫓겨가는 적들이 《덥시수도》로 정해놓고 미24보병사단부대를 진입시켜 방어하고있던 대전을 하루밤사이에 완전히 포위하고 적들을 섬멸한 승리였다.

세 전투승리의 요인적근거는 서로 다르지만 그 승리의 요인은 하나, 김일성주석의 기묘한 전법의 승리라는것이다.

바다에서의 승리부터 보자.

주석께서는 적의 함선진입에 대한 공격은 대규모타격부력의 협동공격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지난 시기의 군사교범을 초월하시였다. 방어면적 적함선진입이 부추나 해에 정박하고있다는것을 파악하시고 깊은 밤에 접근전, 기습전으로 적함선전단을 타격할때 대한 명안을 내놓으시였던것이다. 이 명안이 《바다의 움직임은 섬》을 수장시였다.

하늘에서의 승리도 그렇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공중전들은 프로펠러식비행기들간의 공중전이었다. 조선전쟁시기 분식비행기의 대대적인 출현은 새로운 공중전법을 기다렸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이에 대하여서도 명쾌한 해답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분식비행기가 속도가 빠른 반면에 선회반경이 크다는 약점을 통찰하시고 그것을 이용하여 선회반경이 작은 프로펠러식비행기보다 분식비행기를 떨구는 새로운 전법들을 쓰시였던것이다. 이 전법들이 《공중우세》를 태평양 건너의 제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땅우에서의 승리도 마찬가지로 분석된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병사들에는 포위전법은 정면에서 공격하는 부대들과 향익측에서 타격하는 부대들이 일정한 중심에서 합치는 방법으로 실현하는것이라고 서술하고있었다.

그러나 주석께서는 기본법법에 구애되지 않고서도 명활무쌍한 후회전법으로 야간에 미24보병사단을 불의에 신속히 완전포위하고 소멸할때 대한 전법을 쓰시였다. 이 전법이 《상승사단》의 운명을 피멸로 결정지었던것이다.

이처럼 전승은 자기식의 전략과 전법으로 이기는 승리철학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다른 하나의 승리철학을 서술할 차례이다.

국제협약들에는 전쟁에서는 적의 병력과 군사시설물만 공격대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선전쟁에서 이 규정이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보자.

조선의 전승은 사상정신력이 전쟁승리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을 과시한 위대한 전승이었다.

다시금 확인하건대 조선의 전승은 전쟁의 운명은 무기가 결정하는것이 아니라 사상정신력이 결정한다는 진리를 처음으로 깨우쳐준 력사적사건이었다. (조선병사들과 인민들이 발휘한 사상정신력의 승고한 세계에 대해서는 편의상 다음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통치로부터 해방된지 얼마 안되리 무기도 매우 부족하였지만 사상정신력이 전쟁에서 결정적인 힘이 되어 미국의 대포와 땅크, 함선과 비행기를 짓부서버리는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였다.

결국 조선의 사상정신난능론이 미국의 《무기만능론》을 무물쯤케 만들었다.

세계는 조선의 전승에서 사상정신난능론이 승리하는 새시대를 보았다.

그렇다면 여태껏 서술한 세가지 근거는 무엇을 결론케 하는가.

천출명장 김일성주석께서 안아오신 조선의 전승이야말로 거대한 정치군사적무게를 가지고 인류사의 수천년을 크게 흔들어놓은 중대사변이라는것이다.

되어 전쟁수행에서 보충적인 역할을 하였다. 주석께서는 조성된 군사정세와 산악이 많은 조선의 조건을 고려하여 최고사령부의 통일적인 지휘하에 정규군련합부대들로 직후에 강력한 제2전선을 형성하도록 하시였다. 이 전략 또한 비범한것이였다.

적극적인 방어전략 역시 전례를 따르던것이 아니었다.

전쟁사의 폐지들에는 방어전은 은폐와 참호, 교통호, 공병장애물에 의한 싸움으로 씌여져있다. 적의 공격에 힘겨우던지 프랑스의 《마지노선》을 보아도 총길이 380km의 방어진상에 5,000여개의 영구화력시설물들로 이루어진 《완성된 방어지대의 표본》으로 알려져있었다. 주석의 전략은 이와 다르시였다.

그이께서는 현대전쟁의 특성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산이 많은 조선의 지형에 맞게 강도를 기본으로 하는 은폐화된 방어전술을 골실하고 적을 철대면 적극적인 진지방어전략을 세우시였다. 이것 역시 독창적인 전략이다.

이번에는 주석께서 창조하신 많은 전법중 몇가지에 서술의 키를 옮겨보겠다.

세 전투의 승리에 대해서만 주목해보자. 첫번째는 조선해군의 어뢰정 네척이 미국의 중순양함 《블러드》호함선전단을 기습하여 단 세발의 어뢰로 이 함을 침몰시킨 승리이고 두번째는 하루사이에 조선의 프로펠러식비행기 2대가 미전략폭격기 《B-29》들과의 싸움에서 《공중우세》를 2대나 격추한 승리이다.

세번째는 조선인민군 용사들이 쫓겨가는 적들이 《덥시수도》로 정해놓고 미24보병사단부대를 진입시켜 방어하고있던 대전을 하루밤사이에 완전히 포위하고 적들을 섬멸한 승리였다.

세 전투승리의 요인적근거는 서로 다르지만 그 승리의 요인은 하나, 김일성주석의 기묘한 전법의 승리라는것이다.

바다에서의 승리부터 보자.

주석께서는 적의 함선진입에 대한 공격은 대규모타격부력의 협동공격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지난 시기의 군사교범을 초월하시였다. 방어면적 적함선진입이 부추나 해에 정박하고있다는것을 파악하시고 깊은 밤에 접근전, 기습전으로 적함선전단을 타격할때 대한 명안을 내놓으시였던것이다. 이 명안이 《바다의 움직임은 섬》을 수장시였다.

하늘에서의 승리도 그렇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공중전들은 프로펠러식비행기들간의 공중전이었다. 조선전쟁시기 분식비행기의 대대적인 출현은 새로운 공중전법을 기다렸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이에 대하여서도 명쾌한 해답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분식비행기가 속도가 빠른 반면에 선회반경이 크다는 약점을 통찰하시고 그것을 이용하여 선회반경이 작은 프로펠러식비행기보다 분식비행기를 떨구는 새로운 전법들을 쓰시였던것이다. 이 전법들이 《공중우세》를 태평양 건너의 제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였다. 영웅의 심장에서 뿜어져나오는 그 애국정신이 불꽃기가 쏟아져나오는 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게 하였다. 영웅의 그 승고한 정신세계가 나의 가슴을 친다.

한 육탄영웅과 그를 취재한 종군기자에 대한 이야기도 떠오른다. 적의 중기 화공을 가슴으로 막고 진격로를 연 영웅은 가슴에 11발의 총탄을 맞고 살아남은 영웅이었다.

이때껏 전쟁사에 이런 육탄영웅은 없었다고 본다.

그런데 눈과 얼굴에 중상을 입고 온 통 불대를 감고있는 한 종군기자가 이 육탄영웅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한다. 종군기자는 전혀 불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또 담가에 실린 몸이 었지만 끝내 영웅을 취재하여 세상에 전하였다.

쏘드전쟁때도 쏘련의 많은 기자들이 종군활동을 하였다. 일리야 에렌부르크가 종군하며 쓴 글을 보고 그의 《글라디들의 신랄성은 카슈파의 일제사격과 같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 조선기자의 위훈은 어떻게 격찬하여야 할것인가.

중상당한 기자가 눈과 얼굴을 온통 불대로 감은채 불사신의 영웅을 취재하여 병사들과 인민들을 크게 고무한것도 싸우는 조선의 기상이고 기적이 아니겠는가. 다른 하나의 이야기는 글하지 않은 섬에 대한 이야기이다.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는 세계를 향해 《크로마이트 100-B계획》이라는 암호를 가진 인선상무작전을 기어로 삼아시킬것이라고 콘로서를 썼다. 이 작전수행을 위해서는 0.66km밖에 안되는 조선의 작고도 작은 섬인 울미도를 점령하여야 하였다.

싸움은 1개의 해안포병중대와 1개의 보병중대로 이루어진 조선인민군과 5만여명의 병력과 수백척의 함선, 1,000여대의 비행기를 가진 미군과의 격전이었다. 조선의 위급지휘관과 미국의 5장군과의 대결이기도 하였다.

당시 조선인민들은 작은 섬은 불바다에 잠기고 바위들이 부서져 가루가 되었으며 바다가 끓고 태양도 검은 화염속에서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인민군 해군용사들의 필사적으로 하여 미군의 울미도점령기도는 3일이나 좌절되었다고 전해진다.

세계가 이 좌절에서 본것은 무엇이었는가.

미국 《무기만능론》의 패배와 조선의 사상정신난능론의 승리를 보았다.

미국도서 《맥아더의 수수께끼》의 저자가 조선전쟁의 실상을 맹렬하게 들여다보았다면 패전의 책임을 지고 52년간의 군인생활의 종말을 짓게 된 맥아더의 비극의 대담, 조선전쟁에서의 미국의 패전의 대담을 이 작은 섬의 영웅정신에서도 찾을수 있었을것이다.

조선은 또 하나의 승리철학, 사상정신력으로 대적을 이기는 승리철학을 세계에 보여주었던것이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의 주되는 력점은 무엇인가.

단언컨대 독창적인 전략과 전법으로 이기는 철학과 승고한 사랑과 정으로 이기는 철학, 불굴의 사상정신력으로 이기는 철학, 이 3대승리철학이 조선으로 하여금 미국을 이기는 군사적기적을 가져오게 하였다는것이다.

3대승리철학은 동방조선만이 가지고있는 보검이며 백승을 담보하는 투호무기이다.

오늘 세계는 조선전승의 계승을 현실로 보고있다.

1950년대 총포성속의 전쟁에서 3대승리 철학으로 대적과 싸워 이기신 김일성주석처럼, 곧 60년간의 투쟁이신 전쟁에서 선군정치로 대적을 무물쯤케 하신 김정일영도자처럼 김정은원수께서는 이 시각에도 탁월한 선군정도로 조선의 사회주의수호전을 최후승리로 이끄시고 있다.

장시간의 조미대결사는 세계에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파쇼독재세력을 청산하고 자주, 민주,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

4. 19의 기개로 반역《정권》에 철추를

지금으로부터 55년전 남조선에서는 리승만대국《정권》을 파멸로 몰아넣은 4월인민봉기가 있었다.

오늘도 우리 겨레는 영웅적봉기자들이 발취한 불굴의 투쟁정신을 돌이켜보며 인민대중의 정의의 항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새겨안고있다.

4월인민봉기는 해방후 15년동안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분리를 쟁이 고착시켰던 인민들의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었으며 남조선전역에서 수백만명에 이르는 광범한 군중이 참가한 대중적인 반미반파쇼항쟁이었다.

인민들의 투쟁열에 당황한 리승만역도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만적인 탄압을 가하였지만 4.19항쟁용사들은 결사항쟁을 벌여 마침내 친미독재《정권》을 거두르려하였다. 이것은 전후 남조선인민들이 반미반파쇼투쟁에서 거둔 첫 승리였으며 미제의 식민지파쇼정치를 밀부려 제 뒤를 들어놓았다.

4월인민봉기를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은 의외의 식민지지배와 대국노들의 파쇼독재통치를 용납치 않을 강한 항거정신과 기개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4월인민봉기는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들이 힘을 합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하게 투쟁한단면 제야무리토의한 독재세력도 능히 타소할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4월인민봉기가 있는 때로부터 반세기 가 넘는 세월이 흘렀으나 봉기자들의 넋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간섭, 외세에 추종하는 친미보수세력의 반역당면에서 기인된다.

미국은 근 70년동안 남조선에서 친미주자들을 내세워 사회의 자주적, 민주주의적발전을 가로막고 조국통일을 막막하게 방해하였다. 4월인민봉기에 의해 리승만《정권》이 무너지게 되자 박정희군사정권을 새로운 주주로 내세우고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야

수적으로 탄압하게 한것도 미국이다.

《유신》독재자가 총에 맞아 죽은 후에 도 미국은 피피집권자를 원하여 갈아대면서 남조선에서 식민지지배체제를 강화하고 반역《정권》을 인민탄압으로 내몰아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약탈하게 짓밟았다.

미국의 적국적인 지지와 뒷받침에 4.19의 권취물을 빼앗은 박정희군사정권은 야만적인 총알정치, 폭력정치로 각계의 진보적정당, 단체들과 애국적인 인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함으로써 온 남조선을 피비린 인간살육장으로 만들고 북남대결을 극도로 격화시켰었다.

대우가 참을수 없는것은 《유신》독재의 바통을 이어 현 피피집권자가 미국을 등에 업고 《유신》독재의 부활에 미쳐달면서 외세의존과 파쇼독재, 반통일의 대국배적책임을 극도로 격화시켰었다.

《유신》후의 집권기간은 미국의 배후조종밑에 남조선의 식민지예속화를 심화시키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철저히 유린말살하면서 북남관계를 극도의 파국상태에 몰아넣은 용납 못할 죄악의 나날, 남조선에 대한 타소할수 없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금 남조선은 과거의 《유신》독재시기로 되돌아가고있다. 사회의 민주화와 북남관계개선,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물결을 생전권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과 《유신》독재, 《제2차독재》로 몰려 가혹한 탄압과 박해를 당하고있다. 통합진보당이 강제해산되고 개교조가 합법적지위를 박탈당하였고 간접직선제인 《자주민주》가 강제폐지된것 등은 《유신》독재시기에나 찾아볼수 있는것이다. 얼마전에 있는 희망정치연수포럼 대표 황선과 제이동모녀 성 선민에 대한 탄압사건은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도 없는 세계화악의 인권유린지대로서의 남조선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현 피피집권자는 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오만과 독선으로 반역정 책을 이어가는 극악한 독재자로 악명을 떨치고있다. 그 무는 《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광고하던 남조선집권자가 벗어난것이란 《경제활성화》의 간판에 《서민들의 주머니털어내기》, 제법들과 공모한 《로동자주자기》, 실업의 고통속에 청년들을 인생포기와 범죄의 나락에 몰아넣는 《청년주자기》였다. 집권자가 제창한 《국민행복시대》는 최악의 《서민행복시대》, 《청년실업시대》라는것이 남조선인심이 내린 결론이다.

최근 피피대당이 각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개혁을 강행하고있는 속에도 더진 정경기업회계장관회의 《자살사건》은 현 보수집권세력의 부패한 꼴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의 한 언론이 현 《정권》의 출현 2년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불통, 경제는 정통, 국정은 덕통, 국군은 분통, 서민단 고통이라고 평하면서 피피집권세력을 비난조소하였는가.

그런이 아니다. 현 집권세력이 권력의 자리에 틀고있지 2년 남짓한 기간 북남사이에는 대결과 긴장상태, 핵전쟁위험담이 더욱 격화되어가고있다.

피피당국은 조국해방 일흔흔이 되는 올해에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으로 자주통일의 대로를 열어나갈때 내내 우리의 제에 반공화국배적파쇼당과 북침핵전쟁도발소동으로 대담해나섰다. 피피들이 외세에 추종하여 우리의 《핵과 인권》을 걸고넘어 반공화국배적책임을 고취하는 속에서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대화와 관계개선이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한것이다.

오늘의 참혹한 현실은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4월인민봉기자들의 넋을 이어 외세와 대국노들을 쫓아버리기 위한 대중적투쟁에 부르고있다.

반미자주화, 반독재민주화, 조국통일을 이룩하는것은 55년전 4월인민봉기

자들의 가슴속에 간직되었던 념원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강점과 지배정책이 지속되고 그에 추종하는 친미대국적세력의 파쇼독재정치, 폭력적정경도발책이 계속되는 한 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은 언제 가도 가사질수 없으며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엄중한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게 될것이다.

반미자주화투쟁은 강도를 지기고 민족의 운명을 지키며 자주통일의 대로를 여는 정의의 애국투쟁이다.

총미결중은 죽음이며 대국안락의 길이다. 4월인민봉기가 남조선인민운동사에 빛나는 한페이지를 차지하고있는것도 인민들의 자주권을 실현하고 민족적연명을 떨치기 위한 애국적투쟁거거때문이다.

지금 남조선전역에서 벌어지는 《세월》호선상규명을 위한 투쟁과 반박군체배파살포투쟁, 공무원연금개혁행동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반《정부》투쟁은 파쇼독재를 절대로 용납치 않겠다는 인민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 갈간고 싸우려는 각계층 인민들의 분노와 의지의 불꽃이다.

남조선의 로동과 민주로동, 공무원로동조합, 공무원로동조합연맹, 교직원로동조합 등 모든 로조단체들이 연대하여 수십년간에 전지역적인 총파업을 선언하였다. 《미친 《정부》에 분노한다. 《투쟁으로 우리의 권리를 지켜내자!》, 《민중을 등진 박근혜(정권)를 퇴진시키자!》는 격노의 함성이 반역《정권》을 전몰시키고있다.

남조선의 정치정세는 반독재민주주의의 불길이 세게 타올랐던 55년전의 4월인민봉기처럼 발발해 하고있다.

인민을 등진 반역《정권》은 파멸을 면치 못한다.

가슴속에 4.19의 넋이 살아있는 남조선인민들은 반미자주화, 반독재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대중적항쟁으로 시대와 민족을 등진 역사의 반동들에게 종국적파멸을 안기고야말것이다.

리 호 진

진보세력밀실을 드러낸 악법조작능동

최근 남조선에서 《세 누리당》에게 리들이 미국대사정법사건과 관련하여 《제2, 3의 김기종을 막아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면서 그 무는 《테러방지법》이니, 《법피》니 하고 걸고들면서 악랄하게 탄압박해하였다. 한편으로는 《반국가단체》, 《법피단체》로 판정받은 단체들을 해산할수 있는 《법》이 없기때문에 이 단체들의 활동을 막을수 없다고 하면서 《법피단체해산법》을 조작해내려고 피는 피를 내뿜었다.

파쇼적인 《보안법》로도 부족하여 《법피단체해산법》이라는 새로운 악법까지 꾸미내어 각계진보민주세력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리려는 피피대당의 당동은 인민들의 커다란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보수세력의 망명을 수많은 각종 악법들과 폭력기구들을 조작하여 진보적인 정당, 단체들을 강제로 해산하고 중세적이긴 총알정치, 폭압통치를 실시하여 온 남조선 땅을 철창없는 감옥으로 만들었다. 《유신》독재자의 죄악과 지금도 다름없는것으로 락인하면서 악법체정능을 당장 견어울것을 강력히 요구해나섰다.

하지만 피피대당은 저들의 흉계를 결코 버리지 않았다. 올해에 피피법무부는 집권자에게 신년연무보고를하는것을 하면서 조국통일법민권법 남측분부를 비롯한 《의정단체》와 《북을 금지하는 단체들의 활동을 금지하며 해산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파쇼적조치를 드러냈다. 수렁에는 풍속에서도 양무리를 생각한다고 자나 깨나 진보민주세력말살을 획책해나 피피보수세력인 미국대사정법사건을 그들을 모조리 숙청

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자마자 벌려놓았던 불온이다. 집권하기 전부터 조국통일운동에 앞장서고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는 진보민주세력을 아니꼽게 여겨온 현 피피집권세력은 그들의 활동을 당치 않게 그 무는 《반국가활동》이니, 《법피》니 하고 걸고들면서 악랄하게 탄압박해하였다. 한편으로는 《반국가단체》, 《법피단체》로 판정받은 단체들을 해산할수 있는 《법》이 없기때문에 이 단체들의 활동을 막을수 없다고 하면서 《법피단체해산법》을 조작해내려고 피는 피를 내뿜었다.

파쇼적인 《보안법》으로도 부족하여 《법피단체해산법》이라는 새로운 악법까지 꾸미내어 각계진보민주세력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리려는 피피대당의 당동은 인민들의 커다란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보수세력의 망명을 수많은 각종 악법들과 폭력기구들을 조작하여 진보적인 정당, 단체들을 강제로 해산하고 중세적이긴 총알정치, 폭압통치를 실시하여 온 남조선 땅을 철창없는 감옥으로 만들었다. 《유신》독재자의 죄악과 지금도 다름없는것으로 락인하면서 악법체정능을 당장 견어울것을 강력히 요구해나섰다.

하지만 피피대당은 저들의 흉계를 결코 버리지 않았다. 올해에 피피법무부는 집권자에게 신년연무보고를하는것을 하면서 조국통일법민권법 남측분부를 비롯한 《의정단체》와 《북을 금지하는 단체들의 활동을 금지하며 해산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파쇼적조치를 드러냈다. 수렁에는 풍속에서도 양무리를 생각한다고 자나 깨나 진보민주세력말살을 획책해나 피피보수세력인 미국대사정법사건을 그들을 모조리 숙청

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삼았다. 피피들은 미국대사정법사건이 일어나자 진상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북을 추종하는 세력》이 저지르듯이, 《계획된 테러》로 요란하게 광고하며 대대적인 《총복》몰이, 《타녀사냥》에 피는 피를 내뿜었다. 김기종의 의로운 행동을 《총복파괴세력에 의한 테러》로 둔갑시키고 이 기회에 《법피단체해산법》을 어떻게 하나 성사시켜 저들의 파쇼적흉계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이미 그 무는 《내란을 모니, 《총복정당이나 뭐니 하며 《헌법제정》을 내세워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권력보수세력이다. 그들이 《법피단체해산법》까지 조작해낸 경우 남조선의 진보민주세력은 완전히 초토화의 위기에 처하게 될것이다.

남조선의 역대 파쇼독재들도 진보적인 단체들을 강제로 해산하는것을 《법》화하지는 못하였다.

현 피피집권세력의 망명은 그 비열성과 악랄성에 있어서 선행독재자들을 무색케 한다. 보수집권세력의 파쇼적당면에 대해 세정적민주권한 대변인은 《법피단체해산법》이나 《테러방지법》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를 탄압하기 위한것으로서 제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단죄하였다.

피피대당이 반파쇼법조작으로 각계각층의 파쇼악법정신을 억누르고 날로 심각해지고있는 통치위기에 벗어나려고 발악하고있지만 민족을 등지고 통일을 가로막으며 정의에 도전하는자들에게 체제질것은 비참한 파멸뿐이다.

본사기자 김 함 하

반인민적악정에 항거하여

반인민적악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항거가 있기 마련이다.

최근 남조선정부는 근대중국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무참히 유린말살하고 파쇼독재를 일삼는 피피보수세력을 반대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대중적투쟁으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얼마전 민주로총은 충청북도에서 집회를 열고 피피당국의 반인민적악정을 끝장내기 위한 총파업에 나설것을 결의하였다.

모임에서는 제법과 환적이 되어 로동자들의 생존권을 버림으로써 내몰고있는 반역《정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나왔다.

반인민적악정은 당국이 민주적인 로동운동을 짓밟고 친제법정치를 실시하며 로동자들을 공격하고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항하고 싶다면 단 일차의 파쇼를 지지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한 로동자들의 분노를 모아 시민을 살리고 민중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것을 호소하였다.

그들은 현장에서 작업을 멈추고 로동자들을 최대규모로 불러

일으켜 《정권》과 자본에 직접적 타격을 주는 위력적인 4.24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시키며 여기저기 로동자들이 앞장서 절정을 다잡고있다.

이날 모임에서는 로동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하면서 민주로총의 총파업으로 박근혜《정권》을 끝장낼 투쟁방향과 목표들이 논의되었다.

참가자들은 각 도, 시, 군과 작업장 등에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나감으로써 반역무리를 몰아내고 로동자, 민중이 잘사는 세상을 열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민주로총 강원지부도 16일 춘천시에서 조합원회의대회를 가지고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진보세력말살을 노린 피피당국의 파쇼악법정도에 항거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목소리도 높이고 울려나오고있다.

남조선의 한 인터넷신문은 진보세력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는 파쇼악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설을 쓰고 피피당국의 광란적인 악법정도에 항거하는 파쇼독재가 살면치는 암흑천지

로 되고있는 현실을 개탄하였다. 사설은 2008년 2월 파쇼당국이 폭압무리를 내몰아 경상남도의 한 교원의 집과 사무실을 강제수색하고 《보안법》에 걸여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 미쳐달려있다고 폭로하였다.

사설은 대법원이 그의 소지물이 이 총과 가스검거위장을 금할수 없다고 55년전의 4월 항쟁참가자들은 죽으면 죽었지 이상 지체와 파쇼독재자들의 노로 살수 없다는 불같은 의지를 안고 싸웠다. 항쟁의 나날 세월을 비롯한 각지에서 울려오던 분노의 함성과 대중적투쟁에 떨쳐나선 인민들의 열정이 아직도 귀에 쟁쟁히 들리고있다고 말했다.

《협잡《선거》 물리치자》, 《이 반 《선거》는 무효다. 개표실시 말라!》, 《의승만 《정권》 타도하라!》, 《미국은 간첩말라!》... 4.19인민봉기는 미제의 식민지배와 리승만피조당의 반역정도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 쌓인 분노와 항거의 폭발이었다.

4.19인민봉기의 도화선으로 된것은 1960년 3월 15일 대국역적 리승만역도가

그 어떤 폭압도 인민대중의 힘을 당해낼수 없다

나를 지금으로부터 55년 전 남조선에서 일어난 4.19인민봉기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다. 그래서인지 해마다 4월 19일이 되면 나의 생가는 졸졸 군사분계선 너머의 남쪽에 미치곤 한다.

그날의 영웅적봉기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되새길수록 이 뜻고 가슴거위장을 금할수 없다. 55년전의 4월 항쟁참가자들은 죽으면 죽었지 이상 지체와 파쇼독재자들의 노로 살수 없다는 불같은 의지를 안고 싸웠다. 항쟁의 나날 세월을 비롯한 각지에서 울려오던 분노의 함성과 대중적투쟁에 떨쳐나선 인민들의 열정이 아직도 귀에 쟁쟁히 들리고있다고 말했다.

《협잡《선거》 물리치자》, 《이 반 《선거》는 무효다. 개표실시 말라!》, 《의승만 《정권》 타도하라!》, 《미국은 간첩말라!》... 4.19인민봉기는 미제의 식민지배와 리승만피조당의 반역정도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 쌓인 분노와 항거의 폭발이었다.

4.19인민봉기의 도화선으로 된것은 1960년 3월 15일 대국역적 리승만역도가

장기집권을 꾀하면서 《대통령》선거를 급급과 편을 총발하여 사상 류례없는 부정협잡선거로 치른것이다.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리승만도당의 악정에 시달림받은 시달린 인민들은 《못살았다, 같이 열자!》라는 투쟁구호를 들고 리승만의 장기집권을 반대하여 그해 이른바 4.19인민봉기를 일으켰다. 대국역적 리승만은 인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듣지 않고 끝내 3월 15일 부정협잡선거를 강행하였던것이다.

리승만의 《자유당》은 득표를 끌어올리려고 온갖 비열하고 추악한 협잡행위를 다 강행하였다. 선거당일 경찰장들을 비롯한 폭력대원들을 동원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야당참정파의 위협마저 방패하고 《피아노투표》, 《울메비투표》와 3인조, 6인조, 9인조의 공개투표를 비롯한 부정협잡행위를 거러걸고 강행하였다.

《자유당》의 이런 부정협잡선거를 격분한 인민들은 미제와 리승만도당을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에 떨쳐나섰다.

마산에서는 시위가 16명이 경찰의 흉탄에 목숨을 잃고

72명의 부상자가 났다. 이 피의 사건을 계기로 민심은 분노하였다. 그러던중 마산안바다에서 파쇼괴뢰들에게 의해 무참히 학살된 김주열학생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이를 계기로 인민들의 분노는 더더욱 폭발하였다. 격노한 인민들은 대중적봉기에 떨쳐나섰던 그들을 삼시에 서술과 파루, 대포, 인건, 광주, 수원, 춘천 등 전지역으로 파급되어갔다. 4월 19일 서울에서는 10여만명의 인민들이 《백은 정치 물러가라!》, 《못살았다, 같이 열자!》, 《통일만이 살길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중적항쟁을 벌였다. 항쟁군중은 《자유당》뿐 아니라 《한민당》, 《투두대》전를 등에 붙여 지르며 리승만의 흉상을 허물어 목에 걸고 달려나오다가 반역적인 애국인 《강우대》로까지 육박해들어갔다.

이에 당황장조한 리승만역도 미제의 지령민에 《제법령》을 발표하고 시위자들을 탄압에 광분하였다. 항쟁에 떨쳐나선 수많은 시민들이 경찰의 흉탄에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였다. 하지만 애국적인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고정치도 달라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4.19봉기자들이 이 항쟁과 결말했던 새정치, 새 세도, 새 생활은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지금 남조선도처에서는 박근혜《정권》을 타도하자는 분노와 항거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나오고있으며 반박군체배까지 부르고있다.

독재와 폭압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반항이 있기 마련이다.

남조선의 현 보수집권세력이 제야무리 권력을 휘두르며 파쇼탄압에 미쳐달려오며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의 앞길을 결코 가로막을수 없다.

외세를 쟁기는 역사의 반동들에게 체제질것만 쓰디쓴 파멸의 운명밖에 다른것은 없다.

4.19인민봉기자들의 넋은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을 막강해《정권》의 대국반역행위를 짓부시기 위한 대중적인 투쟁으로 부르고있다.

나는 이의 항쟁참가자들의 정신을 이어 남조선인민들이 반역《정권》을 타도하고 새 정치, 새 사회에 대한 념원을 반드시 실현해나갈것을 호소한다.

재해평화통일촉진협의회
회원 정 규 진

오늘의 세계

최근 유엔환경관리계획이 발표한데 따르면 지난해에 세계적으로 건설된 태양열 및 풍력발전소들의 발전능력이 총 1억 3000kWh에 달한다. 이것은 재생가능한 에너지가 세계적인 전력공급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규모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대되고있다. 많은 나라들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에 의해 해결해나가고자 하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2011년에 2020년까지 풍력을 이용한 전력생산량을 대폭 늘일것을 내용으로 하는 녹색전력법을 채택하였다.

이 나라의 풍력에너지를 활용하는 2020년에 가서 풍력타원을 이용한 전력생산량을 훨씬 늘일수 있다고 하면서 풍력발전소가 2319개에 이르러 2030년에 이르는 2배에 달할것으로 예측하고있다.

이것은 국내소비전력량의 24%에 해당된다.

태양에너지가 이용하는 지능형도시, 에너지절약형도시

건설이 추진되고있다. 주목되는것은 에너지를 생산할수출국인 중국이건 너나모두 녹색에너지개발에 뛰어 들어가고있다는 것이다.

세계 10대원유생산국의 하나인 사우디 아라비아는 원유수출량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여가고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무진장한 태양에너지기를 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 행하기로 결정하고 태양에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매우 큰 규모의 태양전지종합체 《솔라팜》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무엇한 사막에 건설되게 되는 태양전지종합체는 굉장히 큰 태양발전소로서 국내전기수요의 많은 몫을 맡게 된다.

종합체건설이 완성되게 되면 조업을 시작하는 첫해에 매년 전기수요의 25%를 보장할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원유가 많은 아랍장국련방에서도 막대한 자금을 들여 태양에너지기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현재 이 나라의 사막에 설치되어있는 세계최대규모의 태양열발전소에는 《서울》의 수는 약 26배에 달한다.

이 나라의 마스드르에서는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새로운 에너지를 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있다. 생산량이 많을 때에 는 도시에 있는 대형축전지에 전기를 저장시켰다가 흐린 날이

나 바깥이 없는 날에 쓰이고있다. 만약 도시의 전력량이 부족하면 대 가전의 전력사용량을 제한한다.

수도 아부 다비에서는 깨끗한 에너지를만 운영되게 될 《마스드르 시티》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를 일떠세우고있고있다. 태양에너지는 그 원천이 무진장하다.

전문가들이 밝힌데 의하면 태양 에너지는 태양에너지가 태양표면에서 내보내는 총 에너지의 20억분의 1밖에 안된다고 한다. 때문에 지능형 도시에서는 태양에너지기를 리용하는것이 가장 리상적인 것으로 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운영되고있는 태양에너지기발전설비의 태양에너지기 사용량은 40~60%이며 투자보상기간은 5~10년이라고 한다.

아직까지는 적지 않은 태양에너지기발전설비에서 태양에너지와 함께 가스, 석탄을 보조에너지기원으로 리용하고있다.

도이칠란드가 건설된 태양에너지기발전설비에서는 필요한 에너지량의 70~80%를 태양에너지가 충당한다고 한다.

독재에너지를 개발리용하기 위한 국제적노력은 보다 활발해지고있으며 그것은 하나의 추세로 되고있다.

김 수 진

본격화되는 국제금융분야에서의 다극화흐름

넓고 불균형한 국제질서를 반대하고 다극화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하나의 국제적흐름으로 되고있다.

세계는 제명을 다 산 미국주도의 국제경제체제, 미국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경제체제를 배격하고 경제의 다극화해로 나아가고있다.

로씨야가 독립국가협동체나 나라는 화폐동맹을 형성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얼마전 로씨야대통령 부인은 로씨야,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화폐동맹을 형성하는 문제를 검토해볼것을 이 나라 국가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부전대통령은 유라시아경제동맹위원회에서 앞으로 화폐 및 금융분야의 통합방향을 확정할것을 중앙은행과 정부에 지시하였다고 한다.

인디아와의 무역관계에서 민족화폐제에 관한 협정을 가지고있는 로씨야는 에리트레아, 타이, 인도네시아, 이란과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있다.

미국의 끈질긴 금융제에 대처하여 미국달러에 의한 원유거래의 증진을 선포한 이란정부는 2012년부터 수출하는 원유대금의 일부를 해당 나라들의 화폐로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세계는 제명을 다 산 미국주도의 국제경제체제, 미국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경제체제를 배격하고 경제의 다극화해로 나아가고있다.

로씨야가 독립국가협동체나 나라는 화폐동맹을 형성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얼마전 로씨야대통령 부인은 로씨야,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화폐동맹을 형성하는 문제를 검토해볼것을 이 나라 국가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부전대통령은 유라시아경제동맹위원회에서 앞으로 화폐 및 금융분야의 통합방향을 확정할것을 중앙은행과 정부에 지시하였다고 한다.

인디아와의 무역관계에서 민족화폐제에 관한 협정을 가지고있는 로씨야는 에리트레아, 타이, 인도네시아, 이란과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있다.

미국의 끈질긴 금융제에 대처하여 미국달러에 의한 원유거래의 증진을 선포한 이란정부는 2012년부터 수출하는 원유대금의 일부를 해당 나라들의 화폐로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세계는 제명을 다 산 미국주도의 국제경제체제, 미국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경제체제를 배격하고 경제의 다극화해로 나아가고있다.

로씨야가 독립국가협동체나 나라는 화폐동맹을 형성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얼마전 로씨야대통령 부인은 로씨야,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화폐동맹을 형성하는 문제를 검토해볼것을 이 나라 국가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부전대통령은 유라시아경제동맹위원회에서 앞으로 화폐 및 금융분야의 통합방향을 확정할것을 중앙은행과 정부에 지시하였다고 한다.

인디아와의 무역관계에서 민족화폐제에 관한 협정을 가지고있는 로씨야는 에리트레아, 타이, 인도네시아, 이란과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있다.

미국의 끈질긴 금융제에 대처하여 미국달러에 의한 원유거래의 증진을 선포한 이란정부는 2012년부터 수출하는 원유대금의 일부를 해당 나라들의 화폐로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세계는 제명을 다 산 미국주도의 국제경제체제, 미국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경제체제를 배격하고 경제의 다극화해로 나아가고있다.

로씨야가 독립국가협동체나 나라는 화폐동맹을 형성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얼마전 로씨야대통령 부인은 로씨야,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화폐동맹을 형성하는 문제를 검토해볼것을 이 나라 국가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부전대통령은 유라시아경제동맹위원회에서 앞으로 화폐 및 금융분야의 통합방향을 확정할것을 중앙은행과 정부에 지시하였다고 한다.

인디아와의 무역관계에서 민족화폐제에 관한 협정을 가지고있는 로씨야는 에리트레아, 타이, 인도네시아, 이란과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있다.

미국의 끈질긴 금융제에 대처하여 미국달러에 의한 원유거래의 증진을 선포한 이란정부는 2012년부터 수출하는 원유대금의 일부를 해당 나라들의 화폐로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세계는 제명을 다 산 미국주도의 국제경제체제, 미국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경제체제를 배격하고 경제의 다극화해로 나아가고있다.

로씨야가 독립국가협동체나 나라는 화폐동맹을 형성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얼마전 로씨야대통령 부인은 로씨야,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화폐동맹을 형성하는 문제를 검토해볼것을 이 나라 국가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부전대통령은 유라시아경제동맹위원회에서 앞으로 화폐 및 금융분야의 통합방향을 확정할것을 중앙은행과 정부에 지시하였다고 한다.

인디아와의 무역관계에서 민족화폐제에 관한 협정을 가지고있는 로씨야는 에리트레아, 타이, 인도네시아, 이란과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있다.

미국의 끈질긴 금융제에 대처하여 미국달러에 의한 원유거래의 증진을 선포한 이란정부는 2012년부터 수출하는 원유대금의 일부를 해당 나라들의 화폐로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세계는 제명을 다 산 미국주도의 국제경제체제, 미국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경제체제를 배격하고 경제의 다극화해로 나아가고있다.

로씨야가 독립국가협동체나 나라는 화폐동맹을 형성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얼마전 로씨야대통령 부인은 로씨야,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화폐동맹을 형성하는 문제를 검토해볼것을 이 나라 국가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부전대통령은 유라시아경제동맹위원회에서 앞으로 화폐 및 금융분야의 통합방향을 확정할것을 중앙은행과 정부에 지시하였다고 한다.

인디아와의 무역관계에서 민족화폐제에 관한 협정을 가지고있는 로씨야는 에리트레아, 타이, 인도네시아, 이란과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있다.

미국의 끈질긴 금융제에 대처하여 미국달러에 의한 원유거래의 증진을 선포한 이란정부는 2012년부터 수출하는 원유대금의 일부를 해당 나라들의 화폐로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세계는 제명을 다 산 미국주도의 국제경제체제, 미국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경제체제를 배격하고 경제의 다극화해로 나아가고있다.

로씨야가 독립국가협동체나 나라는 화폐동맹을 형성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얼마전 로씨야대통령 부인은 로씨야,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화폐동맹을 형성하는 문제를 검토해볼것을 이 나라 국가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부전대통령은 유라시아경제동맹위원회에서 앞으로 화폐 및 금융분야의 통합방향을 확정할것을 중앙은행과 정부에 지시하였다고 한다.

인디아와의 무역관계에서 민족화폐제에 관한 협정을 가지고있는 로씨야는 에리트레아, 타이, 인도네시아, 이란과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있다.

미국의 끈질긴 금융제에 대처하여 미국달러에 의한 원유거래의 증진을 선포한 이란정부는 2012년부터 수출하는 원유대금의 일부를 해당 나라들의 화폐로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세계는 제명을 다 산 미국주도의 국제경제체제, 미국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경제체제를 배격하고 경제의 다극화해로 나아가고있다.

로씨야가 독립국가협동체나 나라는 화폐동맹을 형성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얼마전 로씨야대통령 부인은 로씨야,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화폐동맹을 형성하는 문제를 검토해볼것을 이 나라 국가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부전대통령은 유라시아경제동맹위원회에서 앞으로 화폐 및 금융분야의 통합방향을 확정할것을 중앙은행과 정부에 지시하였다고 한다.

인디아와의 무역관계에서 민족화폐제에 관한 협정을 가지고있는 로씨야는 에리트레아, 타이, 인도네시아, 이란과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있다.

미국의 끈질긴 금융제에 대처하여 미국달러에 의한 원유거래의 증진을 선포한 이란정부는 2012년부터 수출하는 원유대금의 일부를 해당 나라들의 화폐로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세계는 제명을 다 산 미국주도의 국제경제체제, 미국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경제체제를 배격하고 경제의 다극화해로 나아가고있다.

로씨야가 독립국가협동체나 나라는 화폐동맹을 형성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얼마전 로씨야대통령 부인은 로씨야,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화폐동맹을 형성하는 문제를 검토해볼것을 이 나라 국가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부전대통령은 유라시아경제동맹위원회에서 앞으로 화폐 및 금융분야의 통합방향을 확정할것을 중앙은행과 정부에 지시하였다고 한다.

인디아와의 무역관계에서 민족화폐제에 관한 협정을 가지고있는 로씨야는 에리트레아, 타이, 인도네시아, 이란과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있다.

미국의 끈질긴 금융제에 대처하여 미국달러에 의한 원유거래의 증진을 선포한 이란정부는 2012년부터 수출하는 원유대금의 일부를 해당 나라들의 화폐로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세계는 제명을 다 산 미국주도의 국제경제체제, 미국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경제체제를 배격하고 경제의 다극화해로 나아가고있다.

로씨야가 독립국가협동체나 나라는 화폐동맹을 형성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얼마전 로씨야대통령 부인은 로씨야,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화폐동맹을 형성하는 문제를 검토해볼것을 이 나라 국가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부전대통령은 유라시아경제동맹위원회에서 앞으로 화폐 및 금융분야의 통합방향을 확정할것을 중앙은행과 정부에 지시하였다고 한다.

인디아와의 무역관계에서 민족화폐제에 관한 협정을 가지고있는 로씨야는 에리트레아, 타이, 인도네시아, 이란과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있다.

미국의 끈질긴 금융제에 대처하여 미국달러에 의한 원유거래의 증진을 선포한 이란정부는 2012년부터 수출하는 원유대금의 일부를 해당 나라들의 화폐로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세계는 제명을 다 산 미국주도의 국제경제체제, 미국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경제체제를 배격하고 경제의 다극화해로 나아가고있다.

로씨야가 독립국가협동체나 나라는 화폐동맹을 형성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얼마전 로씨야대통령 부인은 로씨야,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화폐동맹을 형성하는 문제를 검토해볼것을 이 나라 국가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부전대통령은 유라시아경제동맹위원회에서 앞으로 화폐 및 금융분야의 통합방향을 확정할것을 중앙은행과 정부에 지시하였다고 한다.

인디아와의 무역관계에서 민족화폐제에 관한 협정을 가지고있는 로씨야는 에리트레아, 타이, 인도네시아, 이란과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있다.

미국의 끈질긴 금융제에 대처하여 미국달러에 의한 원유거래의 증진을 선포한 이란정부는 2012년부터 수출하는 원유대금의 일부를 해당 나라들의 화폐로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세계는 제명을 다 산 미국주도의 국제경제체제, 미국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경제체제를 배격하고 경제의 다극화해로 나아가고있다.

로씨야가 독립국가협동체나 나라는 화폐동맹을 형성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얼마전 로씨야대통령 부인은 로씨야,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화폐동맹을 형성하는 문제를 검토해볼것을 이 나라 국가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부전대통령은 유라시아경제동맹위원회에서 앞으로 화폐 및 금융분야의 통합방향을 확정할것을 중앙은행과 정부에 지시하였다고 한다.

인디아와의 무역관계에서 민족화폐제에 관한 협정을 가지고있는 로씨야는 에리트레아, 타이, 인도네시아, 이란과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있다.

미국의 끈질긴 금융제에 대처하여 미국달러에 의한 원유거래의 증진을 선포한 이란정부는 2012년부터 수출하는 원유대금의 일부를 해당 나라들의 화폐로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세계는 제명을 다 산 미국주도의 국제경제체제, 미국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경제체제를 배격하고 경제의 다극화해로 나아가고있다.

로씨야가 독립국가협동체나 나라는 화폐동맹을 형성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얼마전 로씨야대통령 부인은 로씨야,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화폐동맹을 형성하는 문제를 검토해볼것을 이 나라 국가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부전대통령은 유라시아경제동맹위원회에서 앞으로 화폐 및 금융분야의 통합방향을 확정할것을 중앙은행과 정부에 지시하였다고 한다.

인디아와의 무역관계에서 민족화폐제에 관한 협정을 가지고있는 로씨야는 에리트레아, 타이, 인도네시아, 이란과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있다.

미국의 끈질긴 금융제에 대처하여 미국달러에 의한 원유거래의 증진을 선포한 이란정부는 2012년부터 수출하는 원유대금의 일부를 해당 나라들의 화폐로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세계는 제명을 다 산 미국주도의 국제경제체제, 미국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경제체제를 배격하고 경제의 다극화해로 나아가고있다.

로씨야가 독립국가협동체나 나라는 화폐동맹을 형성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얼마전 로씨야대통령 부인은 로씨야,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화폐동맹을 형성하는 문제를 검토해볼것을 이 나라 국가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부전대통령은 유라시아경제동맹위원회에서 앞으로 화폐 및 금융분야의 통합방향을 확정할것을 중앙은행과 정부에 지시하였다고 한다.

인디아와의 무역관계에서 민족화폐제에 관한 협정을 가지고있는 로씨야는 에리트레아, 타이, 인도네시아, 이란과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있다.

미국의 끈질긴 금융제에 대처하여 미국달러에 의한 원유거래의 증진을 선포한 이란정부는 2012년부터 수출하는 원유대금의 일부를 해당 나라들의 화폐로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세계는 제명을 다 산 미국주도의 국제경제체제, 미국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경제체제를 배격하고 경제의 다극화해로 나아가고있다.

로씨야가 독립국가협동체나 나라는 화폐동맹을 형성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얼마전 로씨야대통령 부인은 로씨야,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화폐동맹을 형성하는 문제를 검토해볼것을 이 나라 국가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부전대통령은 유라시아경제동맹위원회에서 앞으로 화폐 및 금융분야의 통합방향을 확정할것을 중앙은행과 정부에 지시하였다고 한다.

인디아와의 무역관계에서 민족화폐제에 관한 협정을 가지고있는 로씨야는 에리트레아, 타이, 인도네시아, 이란과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있다.

미국의 끈질긴 금융제에 대처하여 미국달러에 의한 원유거래의 증진을 선포한 이란정부는 2012년부터 수출하는 원유대금의 일부를 해당 나라들의 화폐로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세계는 제명을 다 산 미국주도의 국제경제체제, 미국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경제체제를 배격하고 경제의 다극화해로 나아가고있다.

로씨야가 독립국가협동체나 나라는 화폐동맹을 형성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얼마전 로씨야대통령 부인은 로씨야,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화폐동맹을 형성하는 문제를 검토해볼것을 이 나라 국가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부전대통령은 유라시아경제동맹위원회에서 앞으로 화폐 및 금융분야의 통합방향을 확정할것을 중앙은행과 정부에 지시하였다고 한다.

인디아와의 무역관계에서 민족화폐제에 관한 협정을 가지고있는 로씨야는 에리트레아, 타이, 인도네시아, 이란과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있다.

미국의 끈질긴 금융제에 대처하여 미국달러에 의한 원유거래의 증진을 선포한 이란정부는 2012년부터 수출하는 원유대금의 일부를 해당 나라들의 화폐로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세계는 제명을 다 산 미국주도의 국제경제체제, 미국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경제체제를 배격하고 경제의 다극화해로 나아가고있다.

로씨야가 독립국가협동체나 나라는 화폐동맹을 형성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얼마전 로씨야대통령 부인은 로씨야,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화폐동맹을 형성하는 문제를 검토해볼것을 이 나라 국가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부전대통령은 유라시아경제동맹위원회에서 앞으로 화폐 및 금융분야의 통합방향을 확정할것을 중앙은행과 정부에 지시하였